

현실적 문제 제기와 낭만적 해결법의 모색

-〈영이록〉의 작품 성격 재 고찰-

허순우*

<차례>

1. 서론
2. 문제 제기와 해결 방법 모색
가. 가족질서 안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갈등 주목
나. 신이함에 기댄 문제 해결과 ‘도교’
3. 문제 제기 및 해결의 목표와 효과
가. 판계의 전복과 명예의 회복
나. 무능한 남편을 둔 여성의 위안과 대리만족
4. 〈영이록〉의 소설사적 의의
5. 결론

<국문초록>

<영이록>은 무능한 남성 주인공 손기가 동서의 놀림을 계기로 도술을 연마하여 도교의 도사가 된 후, 여러 유형의 난제들을 해결함으로써 가문 내적으로 인정을 받고 최종적으로는 국가 천사(天師)의 지위에 오르는 내용을 그린다. 이 작품은 남성 주인공이 도술을 연마, 도교적 요소를 기반으로 하여 능력을 인정받는 과정을 그린다는 점에서 주로 과거에 급제하고 나라에 공을 세우는 남성 인물들 전면에 내세우는 고전소설과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영이록> 연구 초기부터 작품의 성격이 신성소설, 도교소설로 규정되어 왔다. 최근 <영이록>의 현대역본이 출간되고, 완질 이본인 <연세대본>이 소개되면서 다시 이 작품의 도교적 면모에 주목하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 <영이록>에 관한 연구가 작품의 ‘도교적 면모’를 드러내는 데 집중되는 현상에 대한 호기심에서 출발하였다. 도교적 요소가 서사에 수용되었다

* 경희대학교

고 하여 이 작품을 도교소설이나 신성소설로 평가하는 것이 작품의 실상과 부합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영이록>은 작품 초반부를 제외하면 손기의 신이한 능력을 부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술, 도사 등 도교와 관련한 내용들을 폭 넓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작품 내의 비율이 아니라, 실제 도교와 관련하여 서술된 내용들의 총 분량을 합해 본다면 유가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 <소현성록> 연작과 같은 국문장편 고전소설들도 <영이록> 못지않게 도교적 요소들을 수용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72권 72책 <임화정연>은 시모로부터 박대를 받던 조씨와 자유로운 삶을 지향하는 시비 석가월이 여도사가 되는 과정을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서술한다. 그러나 그러한 요소들이 작품에 녹아 있다고 하여 <임화정연>의 성격을 도교소설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유교적 가족 이데올로기나 신분제도가 여성에게 가하는 억압의 양상과 그에 대한 나름의 해결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여성의 삶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하나의 계기로 도교적 요소를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이록>에서 도교적 요소를 수용하는 것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본 논문에서는 보았다. 작품은 어리석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에게 무시당하는 남성 주인공 손기와 그의 아내 형제아의 현실적 어려움을 환상성이 강한 도교적 요소를 통해 해소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서사에서 관심을 두는 부분은 손기가 '도교의 천사'가 되었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잘난 척하던 동서 소운성보다 더 우월한 상황에 도달함으로써 처지가 역전되고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에 있다.

이러한 점을 검토하기 위해 본 논문은 먼저 이 작품이 일상적인 가족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심이 강한 작품이며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낭만성과 흥미성이 강한 방식, 즉 환상성에 기반을 둔 도교적 요소를 폭 넓게 수용하고 있지만 그것이 주제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소재적 차원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 제기와 해결방식 모색을 통해 작품이 지향하는 바와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가문의 위상 제고나 사회적 영웅의 탄생과 같은 거시적 측면이 아닌, 일상적인 가족 내에서의 관계 회복과 명예 회복 그리고 심리적 위안과 대리만족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현실적 문제제기, 낭만적 해결, 도교적 요소, 흥미소, 패러디, 심리적 위안, 대리 만족

1. 서론

이 논문은 최근 <영이록>¹⁾에 관한 연구가 작품의 ‘도교적 면모’를 드러내는 데 집중되는 현상에 대한 호기심에서 출발하였다. <영이록>에 관한 기존 연구도 이 작품이 국문장편소설의 파생작이지만 국문장편소설과 분위기도 이질적이고 주제나 사상도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그 까닭을 도교적 요소나 그에 관한 서술에서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최근 이루어진 연구들과 공통된 지점이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과연 주제나 사상 면에서 이 작품을 도교소설이나 신성소설로 평가하는 것이 작품의 실상과 부합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을 때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해 볼 지점들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국문장편소설과 <영이록>의 관계를 처음 거론했던 시간으로 회귀하는 감이 있기는 하지만, 국문장편소설에 대한 반론, 구체적으로는 <소현성록> 연작(<소씨삼대록>) 일화에 대한 적극적 반론 전개라는 <영이록>의 특성에 주목하여 작품의 의미를 찾아보려 한다.

1) 장서각 본의 표제는 <靈異錄>, 권수제는 <손턴스녕이록>이며, 연세대 본의 표제는 <孫天師靈異錄>, 권수제는 <손천스녕이록>이다. 그간 학계에서는 이 작품을 <영이록>으로 불렀는데, 최근 이 작품의 제목을 <손천사영이록>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최윤희1, 『<손천사영이록>의 이본 특징과 존재 의미』, 『한국학연구』 3,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유효공선행록>이나 <성현공숙렬기>처럼 주인공의 호칭과 등장 인물의 주된 행위를 드러내는 ‘제목 짓기’ 관습에 따른다면 <손천사영이록>이라는 제명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서술상 구분을 위해 작품 전체를 지칭하는 의미로는 <영이록>을 사용하고, 두 이본을 구분해야 할 경우 장서각본 영이록은 <장서각본>, 연세대 본 영이록은 <연세대본>으로 표기한다.

<영이록>이 낙선재본 소설로 학계에 소개²⁾된 이후 연구자들은 이 작품이 여타의 고전소설과는 다른 분위기를 띠는 점 때문에 관심을 보였다. 작품의 내용이나 형식이 국내 창작 소설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영이록>을 번역(번안)작품으로 보거나³⁾, 권선징악이라는 상투적인 교훈의 식에서 벗어나 신이와 영험의 비경(秘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데 성공한 '신성소설류의 극치점'에 놓인 작품⁴⁾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또 도사·도술·도관 등에 관한 서술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작품의 도교적 성격을 지적⁵⁾한 연구도 있었으며, 손기가 겪는 고난과 수련, 변모의 과정을 분석하여 '사위 박대 민담'과 구별되는 영웅담으로서의 의미를 고찰하거나⁶⁾ 작품의 무속적 특성을 분석⁷⁾하는 연구도 이루어졌다. 이후 <영이록>이 국문장편소설 <소씨삼대록>의 일부분을 기반으로 하여 창작된 파생작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연구⁸⁾가 이루어졌고, 국문장편소설의 성향과 단편 영웅소설의 형상을 공유하면서도 탈 가문의식과 단편지향성을 보이므로 국문장편소설의 전변의 양상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평가한 연구⁹⁾도 있었다.

고전소설 연구 초기에 주목을 받았던 <영이록>은 한동안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 최근 완질 이본인 <연세대본>이 부각되면서 작품에 관한 이본연구가 이루어졌고¹⁰⁾, 연세대본의 특성에 주목하여 작품의

2) 정병욱, 「낙선재문고 목록 및 해제」, 『국어국문학』 44·45, 국어국문학회, 1969.

3) 조희용, 「낙선재본 번역소설 연구」, 『국어국문학』 62·63, 국어국문학회, 1973.

4) 이상택, 「영이록 소고」, 『영이록·태원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3.

5) 성현경, 『한국소설의 구조와 실상』,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1.

6) 손찬식, 「영이록의 민담수용양상」, 『국어교육』 49, 한국어교육학회, 1984.

7) 손찬식, 「영이록의 무속적 고찰」, 『어문논집』 26,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86.

8) 임치근, 「영이록 연구」, 『고전문학연구』 8, 한국고전문학회, 1993.

9) 전성운, 『조선 후기 장편소설의 조망』, 보고서, 2002.

도교적 면모를 밝히는 연구¹¹⁾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또 <장서각본>을 선본(善本)으로 하되, <장서각본>과 <연세대본>의 공통 속성을 도교로 보아 <영이록>에 반영된 도교적 상상력을 읽어보려는 연구¹²⁾도 이루어졌다. <연세대본>의 부각과 맞물려 이루어진 최근의 <영이록> 연구들은 작품에 수용된 ‘도교’(도교적 요소)에 주목하였는데, 이들 연구의 차이점은 ‘도교적 요소’를 분석하기는 하지만 하나는 그를 통해 작품의 주제를 탐색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고, 다른 하나는 작품의 성격 규정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에 있다. 최근 이루어진 <영이록> 관련 연구는 인상적인 차원에서 작품의 성격을 신성소설로 규정하거나 작품의 도교적 면모에 대해 언급했던 초기 단계의 <영이록> 연구를 구체화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개별 작품으로서 <영이록>의 독자성(獨自性)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도교적 요소의 작품 내적 기능이 소재적 성격이나 흥미소적 기능이 강한 것인지 아니면 작품의 주제 구현 차원으로 까지 이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으므로 재 논의의 여지가 있다.¹³⁾ 또 원작 <소씨삼대록>과 파생작 <영이록>이 공유하는 문제의식이나 주제 혹은 차별점 등에 대해서도 아직 논의될 부분이 있으므로 작품에 대한 독자적 연구와 함께 원작과의 관련선상에서 <영이록>

10) 최윤희1, 앞의 논문, 2010.

11) 최윤희2, 『<손천사영이록>의 도교적 면모와 의미』, 『우리어문연구』 38, 우리어문학회, 2010.

12) 허원기, 『<손천사 영이록>의 도교적 상상력』, 『고소설연구』 29, 한국고소설학회, 2010.

13) 허원기는 ‘도교적 상상력’, ‘도교적 색채’, ‘도교적 정체성’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소재적 차원에서의 ‘도교’와 주제적 차원에서의 ‘도교적 세계관 구현’에 대한 서술이 모호하게 이루어졌다.(허원기, 앞의 논문, 2010.) 반면 최윤희는 작품에 수용된 도교 관련 지식들을 근거로 하여 <영이록>을 도교소설로 적극 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영이록>을 비롯한 고소설을 유가적 도덕주의의 관점 혹은 상층 사대부가의 보수적 이데올로기 안에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최윤희2, 앞의 논문, 2010.)

을 새롭게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¹⁴⁾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영이록>의 작가가 <소씨삼대록>에서 포착한 문제는 무엇이며, 인식한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활용하는 ‘도교적 요소’의 작품 내적 기능과 성격은 어떠한지에 관해 살펴보려 한다. 그리고 문제를 포착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작가가 집중적으로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또 그러한 작가의 의도를 독자들은 어떻게 수용하였는지에 등에 대해 작품의 문면에 드러난 정보와 향유 과정에서 첨가되거나 변화된 정보를 종합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영이록>의 작품 성격을 재 고찰함으로써 이 작품이 문학사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려 한다.¹⁵⁾

14) 최근 <영이록>의 <소현성록> 수용 양상을 다룬 논문(최현성, 『<손천사영이록>에 나타난 <소현성록>에 대한 시각』,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이 제출되었다. <영이록>을 독립 작품으로 연구하는 최근의 연구 경향과 달리, 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원작 격에 해당하는 <소현성록> 연작과의 관계에 주목했다는 점은 본 논문과 유사하다.

15) <영이록>은 크게 장서각본 계열과 연세대본 계열로 나뉜다. 연세대본 계열은 장서각본 계열에 누락되어 있는(4장) 손기의 수련 과정이 들어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연세대본은 도교적 경향이 장서각본에 비해 선명하며, 여성의 감정, 의상 등을 짙진하게 서술한 특징을 지닌다.(최윤희1, 앞의 논문, 2010 참조) 반면 또 다른 선행연구에 따르면 장서각본은 “장회명의 삽입 여부나 여타 여러 가지 상황들로 미루어볼 때 원형에 가까운 선행본”(허원기, 앞의 논문, 2010, 227면.)으로 평가받는다. 본 논문은 <장서각본>과 <연세대본>을 공동 텍스트로 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비교가 필요한 경우에는 두 작품을 모두 제시하지만, 공통적인 설명을 하는 경우 <장서각본>을 중심으로 예문을 제시한다. <장서각본>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에서 출간된 『영이록·태원지』(1973)를, <연세대본>은 2권 2책으로 된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 소장본을 대본으로 활용한다.

2. 문제 제기와 해결 방법 모색

2.1. 가족질서 안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갈등 주목

<영이록>은 <소씨삼대록>의 삼화 중 승상 소경의 셋째 아들 소운성이 순위 동서인 손생의 어리석음을 약점 삼아 그를 무시하고 괴롭히는 내용을 수용·확대하여 창작한 작품이다. <영이록>은 ‘소운성과 손생의 일화’를 수용하되, 소운성에게 놀림을 받던 손기¹⁶⁾가 우연한 기회에 천서를 수학한 후 도술을 터득하여 대내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천사(天師)가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새로운 이야기를 덧붙여 한 편의 완결된 작품으로 구성하였다.

<영이록>은 <소씨삼대록>의 ‘소운성과 손생’ 일화를 토대로 하여 창작되었기 때문에 <소씨삼대록>에서 말한 대로 소운성이 성격이 호방하고 호기심이 많이 때문에 손생을 놀리게 되었다는 기본 구도를 유지한다. 대신 인물 성격에 변화를 주어 <소씨삼대록>에서는 일화에 불과했던 이야기가 한 편의 소설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 상세 손생인 줄 슷치고 거긔 모르는 테허야 몸을 두로혀 풍경을 보와 강산의 조흐를 기러 넷 사람의 글귀를 읊허 술잔을 나오고 담소허기를 조약히 허더니 홀연 빛전을 티고 거긔 크게 놀나는 테허야 곶오디 <장서각본> 1권 75면.

* 한님이 답 소왈 손이부의 데 삼위 공지니 비록 운건허야 향티를 면티 못허야시나 이디도록 펍박허기를 심히 허노뇨 피츠의 스펀일막이니 호불간

16) <소씨삼대록>에서는 소운성이 일화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손생이라고 불렀다면, <영이록>에서는 손생이 작품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손기’로 명명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손기라는 이름의 획득을 자기정체성에 대한 확신이라고 보았다. (임치균, 『좌절? 바보! 극복? 영웅의 방정식과 문학치료적 함의』, 『문학치료연구』 10, 한국문학치료학회, 2009, 63-64면.

으로 협제하기를 너모 말지어다 상셰 또 거죽 놀나는 테하야 곱오디 <장서각본> 1권 78면.

* 손싱이 마지 못하야 몸을 니러 좌의 나아가 네하고 말석의 계유 안거늘 상셰 몸을 굽혀 답네하고 거죽 공경하야 곱오디 <장서각본> 1권 79면.

* 손싱이 마지 못하야 입속의셔 ㄱ마니 대답하디 천싱의 성명은 손기로서 이다 소상셰 거죽 몰라듯는 테하야 곱오디 연즉 선싱의 고성과 디명이 송기 시니잇가 <장서각본> 1권 80-81면.

인용문은 손기와 소운성이 변하(汧河) 선유회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나 인사하는 짧은 내용 안에서 소운성의 행동에 ‘거짓’이라는 수식어를 다섯 번이나 붙임으로써 소운성의 마음에 진정성이 없고 무례하기만 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소운성이 <소씨삼대록>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인물이며, 가문을 대표하는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는 하지만, 여타 행동을 보았을 때 지나치게 자신감이 있고 또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면이 있는데 <영이록>의 작가는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주목한 것이다.

<영이록>은 또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 유무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배려 없는 태도와 그로 인해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에도 주목을 한다. 손아래 동서인 소운성이 마음껏 손위 동서인 손기에게 무례하게 굴 수 있었던 까닭도 결국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인물의 ‘능력’을 중시하고 그것에 대해 대놓고 칭찬하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혼인 후 손기는 처가에서 살지만 소운성은 잠시 처가에 머무른 후 곧 본가로 돌아간다. 손기가 처가에 머무르는 까닭은 아내 형제야에 대한 배려 때문이다. 이는 손기가 아내에게 하는 “니 임의 지의 집의 이션디 오린 디라 새 교식이 니르기를 당하야 맞당이 집의 도라가고져 하디 그디 친정

써나기를 어려워 홀 거시니 부중의 당새 여러히니 이제 혼 깃흔 고들 청
 하여 아들 작시면 내 조용히 잇고져 호노라”¹⁷⁾라는 발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① 늑녀의 말이 가장 조흐니 구투야 어그릇디 마르소서 하나흔 손낭으로
 호야곰 더러오를 새 사름의게 보디 아니호미 제계 규편호고 들흔 내 몸이
 니셔 신인의 음식기거 슬피미 맛당호니 진실노 낭편호 도리라 <장서각본>
 1권 63면.

② 냥가의셔 혼슈를 다스려 신낭을 마졸시 기구의 부성함과 신낭의 표치
 동탕표일흔 예성이 성네 전 형부의 니르니 가둬이 부인 머리지어 일콧 소리
 진동호니 일노조츰 어리고 흐린 손싱은 더욱 곤욕을 밧더라 <장서각본> 1
 권 60-61면.

인용문 ①은 새 사위 소운성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손기가 자신이 머물
 던 당을 내주고 후원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을 형 참정이 듣고 만류하
 자 오히려 형 참정 부인이 나서서 당을 내주도록 부추기고 설득하는 내용
 이다. 편리함을 이유로 들긴 했지만 능력 없고 못난 사위 손기를 남에게
 보여주기 부끄럽다고 여기는 형 참정 부인의 적나라한 마음이 그대로 드
 러난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들어 하는 손기의 모습은 인용문 ②와 같은
 형태로 묘사된다. 작품 속 시간 순서상으로는 인용문 ②의 내용이 인용문
 ①의 내용보다 앞서는데, 정리하면 일가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비교를 견
 디지 못해 결국 손기 스스로 후원으로 들어가겠다고 마음을 먹는 셈이 되
 는 것이다. <영이록>은 이렇게 능력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문화가

17) <장서각본> 1권 61-62면.

갖는 문제점을 능력 없는 사람을 대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배려 없는 태도와 그로 인해 힘들어 하는 손기의 마음을 통해 포착·제시하고 있다.

<영이록>은 또한 손기의 어리석음이 손기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그의 아내인 형계아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다. 남편의 무능력이 곧 부부 공동의 문제가 되고 그로 인해 아내가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현실의 반영인 셈이다.

③ 이리구러 여러 히 디나미 형공지 급데하야 한님원의 들고 소성은 여러 환난을 겪근 후 ㅁ츨내 공명을 일워 병부상의 니르니 참정 부등이 더욱 변화 홀 분 아니라 필소저의 영귀하를 사름마다 흠모하며 또한 녹소저의 출등한 즈식으로 소부인과 혼쌍 명쥬갯거늘 궁달의 현격하미 니도하니 매양 형태 즈미 모든 적이면 소소저는 비첩의 니르히 금슈쥬옥이 눈의 ㅅ으디 손소저는 빗업슨 의복이 초초하니 일노 더욱 명되 박하야 비필을 그릇 어드물 혼하더라 <장서각본> 1권 65-66면.

인용문 ③은 가족구성원들이 소운성과 손기를 비교하면서 못난 남편을 만나 고생하는 형계아의 운명에 대해 탄식하는 내용이다. 안 됐다고 걱정은 해주지만 어떠한 현실적 대안도 제시해주지 못하는 구성원들의 입에 늘 오르내려야 하는 사람이 느끼는 부담이나 괴로움을 짐작할 수 있는 예이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영이록>은 <소씨삼대록>에서 계승한 ‘동서 간의 갈등’이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사위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장모의 마음, 능력에 따라 사람을 차등 대우하고 비교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태도, 또 한 가정을 이룬 배우자가 느껴야 하는 마음 등에 주목함으로써, 이 작품이 가정이라는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범주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에 대해 갖는 관심을 잘 보여준다. 다만, <영이록>이 <소씨삼대록>의 파

생각이고 작가가 <소씨삼대록>에서 가장 문제적으로 포착했던 지점이 ‘동서 간의 갈등’이기 때문에 <영이록>의 중심에는 손기와 소운성의 갈등이 놓여 있고 그 작가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모색한다. 그러나 결국 이 작품에서 주목한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들도 넓게 보았을 때는 어리석은 사위 부부와 그들을 둘러싼 가족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서 간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야기되기도 하고 해소되기도 한다.

2.2. 신이힘에 기댄 문제 해결과 ‘도교’

<영이록>은 ‘동서 간의 갈등’이라는 문제를 상대적으로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손기와 그의 아내 형제아의 입장에 서서 풀어나가는 작품이다. 거만하고 무례한 소운성의 기를 꺾고 가족 구성원들의 무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작가는 신이힘에 의존하는 환상적 수단을 선택한다. ‘치공자’라고 불리는 손기가 병부상서의 지위에 있는 소운성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의 결과이다.

손아래 동서 소운성에게 심한 조롱을 당해 괴로워하던 손기는 아내의 조언에 따라 동악묘(東岳廟)에 가서 신에게 기도를 한다. 그리고 그날 밤 꿈에 동악묘 신령의 고지를 듣고 천경관으로 가 양구도사를 만나 천서를 익힌다. 수련을 통해 비, 바람, 산, 물 등의 자연을 제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으며 요괴와 정령, 용호와 난봉 등을 제압하는 능력을 얻게 된 손기는 현실로 돌아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친다.

우선 무능력한 자신 때문에 염려하던 아내에게 깨진 유리병을 붙이는 도술을 보여주어 안심을 시킨다. 그리고 자신을 조롱했던 소운성과 말타기, 악기 연주하기 등의 내기를 벌여 도술로 제압하고 함께 모여 있던 가

죽들에게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회자(戲者)의 주술에 걸려 사경을 헤매는 소운성 이들의 목숨을 구해줌으로써 소운성을 완전히 굴복 시키기도 하고, 황궁을 점령한 점령한 요열(妖孽)을 도술로 제거하기도 한다.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신이한 도술을 활용하여 손쉽게 해결한 손기는 최종적으로 “호국턴스 텃허진인 턴하도계교 옥청쇼용국스 위공”에 봉해져 부귀영화를 누린다. 천서를 수학한 이후 어떠한 문제도 막힘없이 해결하며 승승장구하는 것이다. 이때 손기가 행하는 다양한 도술은 고난을 해결하는 도구라기보다는 능력을 뽐낼 수 있는 기회이자 수단의 성격이 강하다.

<영이록>에 반영된 도교적 요소를 살펴보면 손기와 손기 부모를 옥황상제의 휘하에 있었던 천상의 신으로 설정한 것, 손기의 부모를 독실한 도교 신자로 그린 것, 손기를 천사(天師)로 그린 것, 또 작품의 시간적 배경을 도교가 가장 성했던 송(宋) 진종(眞宗) 대로 설정했다는 것,¹⁸⁾ 신선의 종류와 층위에 관한 도교적 지식을 나열하고¹⁹⁾ 업룡을 제압하기 위해 황궁 후원 안 태액지 근처에 단을 쌓는 과정을 세세하게 묘사하며²⁰⁾ 도교

18) <소씨삼대록>에서 소운성이 손생을 조롱한 사건은 송의 황제가 태종(太宗)일 때 일어난 일이다. <영이록>은 이 사건을 송 진종(眞宗) 대에 벌어진 것으로 바꾸었다.

19) 다가 선신의 종뉘 여러 층 잇느니 데 일은 곱오디 턴선이니 기운이 음양과 갓트며 되턴디로 더브러 갓트야 일월을 곱으며 성신을 타 기리 상테기 피섯고 이는 곱은 디션이니 얼골을 닷그며 기운을 너여 일월의 광화롤 먹음으며 음양의 진익을 좃쩍어 정신이 모호이고 금단이 인후의 뼈를 밧고고 범달을 버셔 빅일의 느라오느니 그 죄 턴선과 갓고 데 삼은 같은 인션이니 욱심을 꺾 — 쉰 즐기는 거슬 덜며 밧그로 녁지롤 머금고 속으로 욱익을 숨겨 늘근거슬 밧고와 아히 되어 만흐면 천여 세오 적으면 슈삼빅년을 살고 그 버거는 도션이니 막을 평안이 흐고 기운을 퍼 정신을 모도와 하롤 신령을 통하야 후 도양으로 뼈 상테기 쫓을 통하야 아리로 부록을 민드라 풍운과 뇌우롤 브르며 선선과 사귀롤 호령하야 인간의 요열을 소탕흐고 질병을 구제하니 이 네 선선은 비록 고해 드르느 쏘흔 선선 가운디 정되오 <장서각본> 2권 79-81면.

20) 이 요정이 후원 안 태액디 속의 정신을 감초와 잇느니 너일이 병요일이니 오시의 남방 무기토롤 과 못궤의 남향하야 여덟 모 궤진 단을 밧디 늑히 아홉 자히오 아홉 층

분과에 대한 인식도 드러내고 있다는 것 등 많은 예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선행연구에서는 <영이록>에 수용된 이러한 도교적 요소들이 주제적 차원으로까지 확장되었다고 보았고²¹⁾ 또 더욱 적극적으로 해석한 경우에는 이 작품을 ‘도교소설’로 규정하기도 하였다.²²⁾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구체적인 도교적 지식에 기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한 인물의 삶의 방향 전환이나 사유의 차원에 영향을 끼쳐 새로운 주제를 도출하였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때 <영이록>에서 활용되고 있는 도교적 요소는 작품에 흥미를 더해주는 환상적, 오락적 유희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작품이 그리고 있는 인물들의 대화나 행동, 궁극적인 성공의 양상들 안에 도교적 해석이 가미되어 음미해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서술이 없기 때문이다.

<영이록>은 ‘겸손’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손기의 부모인 손일원 부부를 묘사할 때도 ‘겸손함’을 무엇보다 강조하였다. 그러나 가문의 권세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믿고 교만하게 굴었던 ‘겸손함’과는 상반되는 소운성의 행동이 도교적 관점에서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물론 손기가 아들의 병을 고쳐주자 소운성이 손기의 신술을 공경하며 손기를 따르겠다고 청하는 내용이 등장한

섬을 노코 북방의 계륙 흑토를 파 여섯 자 단을 모으고 또 섬을 여섯 층을 노코 남방의 병적 적토를 파 널곱 자 단의 섬을 널곱 층을 흐고 동방의 갑을 청토를 파 여덟 자 단을 모으고 섬을 여덟 층을 흐고 서방의 경신 빅토를 파 너섯 단을 빠코 네 층 섬을 노코 북방 녹척 단상의 현무기를 세우고 단 우회 여섯 자 거른 농을 민드라 안치고 남방 칠척 단상의 주작기를 세우고 칠척 벌근 농을 민드라 안치고 <장서각본> 3권 37-38면.

21) 허원기, 앞의 논문, 2010, 247-249면.

22) 또한 “철학적 사유를 기반으로 한 도가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는 일반적인 소설들과 달리 <영이록>에 수용된 도교적 요소는 신앙으로서의 도교이며 그렇기 때문에 <영이록>을 도술 위주의 흥미성 측면에서만 파악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도 하였다.(최윤희2, 앞의 논문, 2010.)

다. 그러나 이 제안은 금세 “사람에게는 각자의 운명이 있으며, 도교의 신선이 된다는 것은 빈 산에 누워 약초나 씹으며 배고파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손기의 말과, “인간 부귀영화가 극에 달한 소운성이 무엇이 아쉬워서 신선이 되려 하나”는 형 한림의 말에 한바탕 웃고 마는 농담거리가 된다.²³⁾ 소운성이 스스로 천사를 따르고 싶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쌓고 과오를 범하지 않으며 타인의 위난을 막아주는 등 도교가 윤리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바²⁴⁾를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도교의 최고 수장인 천사의 지위에 오른 손기의 삶에 대한 묘사 역시 부모에게는 효를 국가에는 충을 실천하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묘사된다는 점에서 앞서 말한 것처럼 빈 산에 누워 지초를 씹으며 배고파하는 것이 도교 신선의 삶이라는 도교에 대한 작품의 인식과는 차이를 보인다. 작품 말미에 있는 서술자의 최종 진술역시 “스마턴이 굴오더 사람이 격동치 아니면 엷디 일우미 이시리오 하니 진실노 그러히더 만일 손국공으로 하여곰 세 사발 하슈의 욕을 보디 아니하여시면 엷디 오십 년 산둥 지상의 귀호를 바드리오”²⁵⁾라고 하여 손기가 깨달은 도교의 가치보다는 세속적 성취로서의 부귀영화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⁶⁾

23) <장서각본> 2권 84-86면.

24) 구보 노리파다, 『도교사』, 최준식 역, 분도출판사, 2000, 49-51면.

25) <장서각본> 3권 88-89면.

26) 상대적으로 도교적 경향이 강하다고 평가된 <손천사영이록>의 결말도 이와 다르지 않다. (“슬푸다 사마천이 왈 사람이 격동치 아니면 어이 일우미 잇시리오 하니 진실노 그러히지라 만일 손국공으로 하여곰 세사발 하슈를 욕을 밧지 아어시면 엷디 오십년 산둥지상의 귀호를 바드리오” (<연세대본> 2권 74면.) 오히려 <연세대본>은 손기와 형계아의 부귀와 영화에 대한 서술을 더 확대하였다. 도교 또한 가문의 번영을 위해 적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영이록>이 생각하는 도교 신선의 삶은 빈 산에 누워 영지나 씹으며 배고파하는 것으로 대변되는 탈속적인 것임을 고려할 때, 손기의 부귀영화는 이 작품이 지향하는 도교적 삶과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간론·우주론·인식론 등 심오한 진리를 탐구하는 종교인 도교²⁷⁾에 근거하고 있으면서도 천사가 된 이후 손기의 삶에서 수행의 면모보다 세속적 성취를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점들도 이 작품에 수용된 도교가 소재적 차원의 성격이 강하며, 환상적·오락적 유희로서 작품 안에서 기능하는 면이 많음을 보여준다.²⁸⁾

3. 문제 제기 및 해결의 목표와 효과

3.1. 관계의 전복과 명예의 회복

<영이록>은 천서 수련을 통해 신이한 능력을 획득한 손기가 아내, 처가 식구들, 소운성, 그리고 황제 이하 조정의 대신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드러냄으로써 처가 식구를 중심으로 한 가족 관계 안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과정을 그린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손아래 동서인 소운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명예 회복 문제에 집중한다. 손아래 동서를 굴복시킴으로써 손위 동서로서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한 가문을 대표하는 ‘장자’처럼 확고하면서도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지위의 회복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손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해 가질 수 있는

27) 구보 노리따다, 앞의 책, 2000, 201-203면.

28) “소재론적 접근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작품에서 검출된 사상적 요소를 곧바로 작품의 사상으로 환원해 버리려는 단순논리에 있다. 가령 도교적 요소들이 검출되면 그 작품의 사상을 도교사상으로, 불교적 요소가 검출되면 불교사상으로, 양쪽이 다 검출되면 도·불 사상으로 논단하는 예들이 그것이다. 작품의 사상적 해명이 ‘불교적이다’, ‘유교적이다’는 식의 사상적 성격 규정에 머문다면 그것을 과연 진정한 사상적 이해라고 할 수 있는가. 정작 중요한 것은 검출된 이들 기반적 사상이 작품의 의미와 미학적으로 어떻게 관련되는가. 주제나 세계상 형성에 어떤 작용을 하는가 -또는 주제나 세계상을 어떻게 변용 시키는가-와 같은 사상의 역동적 이해다.”(성기욱, 『사대부 시가에 수용된 신선모티프의 시적 기능』, 『국문학과 도교』, 1998, 12-13면.)

심리적인 권위의 회복을 의미한다. 이는 작품에서 손기의 아내 형계아가 형 참정의 여섯째 딸, 소운성의 아내 형경아가 일곱째 딸로 설정된 것²⁹⁾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만약 소운성과 손기의 대립이 권위를 잃은 만사위와 둘째 사위의 대립이었다면 한 가문을 대표하는 만사위 자리를 두고 벌이는 갈등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작가는 여섯째, 일곱째 사위 간의 갈등으로 설정함으로써 이 갈등이 갖는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의미에 더 집중하고 있다.

작품을 거시적으로 보면 가문 내에서 가문 외부로 공간이 확대되면서 손기는 가족에게 인정받는 것에서 시작하여 사회적 성공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황제에게 인정을 받는 결말에 도달한다. <영이록>을 손기가 주인공인 영웅담이라고 본 선행연구에서는 ‘개별적인 사건’이 별로 유기적이지 않은데 이렇게 공간이 확대됨으로써 작품이 유기성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보았다.³⁰⁾ 앞서 살펴보았듯이 수련 이후 손기에게 주어지는 해결 과제들은 손기의 입장에서 보면 시련이라기보다는 능력 발휘의 기회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웅소설에서 영웅들에게 주어지는 수련 후의 시련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영이록>을 손기가 사회적으로 영웅이 되는 이야기라고 본다면 손기에게 주어진 해결 과제들은 선행 연구의 지적처럼 유기적이지 않다. 그러나 가족관계 내에서의 명예 회복이라는 측면에 주목해서 본다면 손기가 도술을 연마한 후 행하는 이적들은 유기적 관계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깨진 유리병을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도술을 배치한 것은 먼저 오랜 기

29) “화설 참지정스 형욱의 즈논 초뵈니 청취 제람부 사뵈이라. 손상셔로 더부러 동연 급데호야 벼술이 현달호고 스즈칠녀를 두어시니 개개히 괴린과 주옥이라. 네 늑녀의 일흠은 계애니 부인이 잉티홀 적 혼 씬을 어드니 일위 선네 계슈 가지롤 썩거 주어 곶오디.....” <장서각본> 1권 22면.

30) 임치균, 앞의 논문, 1993, 345-346면.

간 손기를 믿어준 아내에게 변화를 알리는 계기로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말 타기·악기 연주하기 등의 내기에서 도술을 보여주는 것은 처가구성원들의 손기에 대한 인식 전환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런 후 손기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소운성에게 다시 한 번 ‘아들의 목숨’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두고 손기로부터 도움을 받게 하는 것은 소운성의 완전한 굴복을 이끌어내는 단계로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장천사와의 대결과 황실의 업룡 퇴치는, 물론 손기의 사회적 성취와 성공을 자체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소운성의 입을 통해 손기가 황후에게 추천되고 세상에 공표된다는 의미에서 손기에 대한 소운성의 굴복과 존중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³¹⁾

<영이록>의 관심이 손기의 가정 내 명예회복, 그 중에서도 손기와 소운성의 관계 재정립에 있다는 점은 서사 전개뿐 아니라 세부적인 묘사 차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소운성은 손기가 육 개월 만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불사약(不死藥)이라도 구해오느라 늦었느라며 형 한림에게 손기를 무시하는 농담을 건넨다. 또 형 한림이 손기가 <주역>에 정통하더라는 말을 전하지만 냉소한다. 그러고는 형 참정이 선유회를 열자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손기를 만나러 간다. 작품에서는 이러한 소운성의 태도를 ‘호기가 높다’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소운성의 호기는 금세 꺾인다.

㉠ 손성이 각별 스양티 아니호고 빙 그을 의지호야 곡도를 쥘호니 그 소리 표표유우호야 바로 하늘을 켜티니 가는 구름 쫓쳐디며 사쥐에 기력이 다 놀

31) 선행연구(임치균, 앞의 논문, 1993)에서는 손기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을 기점으로 작품을 나눈 후, 후반부는 동서 갈등의 문제에서 벗어나 손기의 사회적 성공과 영웅성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형 참정 일가가 천사부를 방문하는 장면, 작품의 결말부의 논평 등을 고려해볼 때, <영이록>의 관심은 가족 내에서의 손기의 명예회복, 가족관계 회복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니러 올고 ㄱ을 바람이 삼삼히 니러나 두던 우히 버들 낚히 다 찌러지거
 늘 형한님 형대와 소상세 다 니러 안자 풀장 쏘고 솟그러하야 안자 듯더니
 또 셋지 곡도를 불너가미 강물이 소소고 큰 고기 나 썩놀며 퇴히 돌히 다
 느려지고 혼 무리 학이 공동의 셋돌며 울거늘 소상세 이씨의 일언을 기구치
못하고 어린드시 안잣더니 손선성이 저 불기를 그치고 좌우를 도라보와 굴
 오디 당부의 노름이 었디 ㄱ는 풍뉴를 흐리오 큰 북을 가져오라하야 손성이
 올흔 손으로 북치를 잡고 왼손으로 옷기슁을 취여들고 니러서 어양삼과를
 치니 그 소리 슬프고 장하야 물우홀 울닌디라 돌과 별이 일시의 어둡고
 큰 바람이 급흔 비를 모라오미 강물 터디며 불근 농과 거른 거북이 낚져 썩
 노니 빅 기우러디고 물결이 소소와 업더질 듯하며 모진 우레와 놀난 번개불
 이 좌상의 셋도니 형가 제성은 니르도 말고 소상세 비록 성되 석석밍절흐고
답낙이 장하나 견디디 못하야 귀를 막고 눈을 ㄱ리와 쓰히 업디여 호읍을
텃티 못하더니 <장서각본> 2권 34-37면.

인용문 ㉠은 자연을 제 멋대로 부리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모두
 를 놀라게 하는 손기의 신술이 돋보이는 예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신술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다가 결국은 귀를 막고 땅에 엎드려 어쩔 줄 모르
 는 소운성의 모습이 자세히 묘사된 예이기도 하다. 선유 초반, 병부상서로
 서 군령(軍令)을 운운하며 강제로 손기에게 술을 먹이려던 호기로운 소
 운성의 모습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장면이다. 찢찢매고 있는 소운성에게
 손기가 “뉘 소상셔를 용망타 하더노 혼 북 소리를 능히 이기디 못하거든
 었디 삼군을 거느려 장췌 되리오”³²⁾라고 덧붙여 말하는 장면은 역전된
 힘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또 소운성의 아들이 회자의 신술에 걸려들어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소
 운성의 아버지 소경은 그에게 “손싱을 보아 이걸하라”라고 조언하며, 손

32) <장서각본> 2권 38면.

기를 우습게 여기던 소운성은 아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리자 결국 손기에게 애걸을 한다.

② 한님이 정히 답하고져 하더니 홀연 소상세 엇게를 메왔고 손의 디 혼
뽁을 들고 계하의 니르러 곱오디 큰 신선은 소상의 민박흔 거슬 구흐쇼셔
 언미필의 또 읍흐며 빌기를 굿디디 아니흐거늘 손상이 처음은 추탁고쳐 하
 였더니 뜻디안으셔 소상세 강위를 버리고 가시랄 저 전과를 사죄흐며 간걸
 흐를 보미 그 괴상의 뇌락흐를 칭찬하고 이에 희미히 우어 곱오디 <장서각
 본> 2권 65면.

인용문 ②는 소운성이 손기에게 아들의 목숨을 구해달라며 애걸하는 장
 면이다. 한쪽 어깨를 드러내고 대를 든 채 몸을 굽혀 간청하는 소운성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 예문은 소운성이 손기 앞에서 최대한
 낮은 자세를 취하며 확실히 굴복하게 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³³⁾

작품은 소운성에 대한 손기의 권위 회복 문제를 작품의 결말 부분까지
 이끌고 가는데, 소운성과 형씨 일가가 손기의 초대를 받고 천사부(天師
 府)를 방문하는 장면에서 그러한 점이 잘 드러난다.

③ 경티 절승흙과 산천의 가려흐를 둘러 정문의 드다라 병부아역 길홀 인
 도하여 문의 들고져 하더니 홀연 문 알피 누른 두건 쓴 녀시 복식이 순산흐

33) 또한 황실을 점령한 요일을 제압하는 과정에서는 소운성 뿐 아니라 <소현성록> 연
 작에서도 가장 뛰어난 인물로 묘사되는 소운성의 아버지 소경마저 손기의 명령에 따
 라 단을 준비하고 인재를 모으는 일을 담당하게 된다. “손턴시 좌의 올라 왕승향을
 향하야 곱오디 (중략) 또 소승상을 향하야 닐오디 전전태우 고경은 네 판즈의의 후신
 이오 전전도위 양연소는 니광필의 후신이니 이 두 사람을 청하야 현무기를 디히오고
 양늑당으로 빅호기를 디히오고 추밀부사 왕덕용으로 주작기 오고 전전도순 검당으로
 현무기를 디히오고 태익지 7의 9홉 섬 드는 가마를 각각 오령을 어기오디 말나흐니
 제인이 명을 듯고 각각 방위를 밧들라 가거늘” <장서각본> 3권 37-42면.

든 무리갓튼 지 불근 막디를 결워 셔셔 드러가물 허티 아니헝거늘 병부아역 이 소리질너 곶오디 병부상셔 소노애 니르러 거시니 엇디 문을 여디 아니헝노 그 군스들이 우어 닐오디 이 일을 모르는 것들아 이 부둥이 엇던 부둥 만 녀겨는가 네 눈이 잇거든 문 우히 텃지 어필을 보라 이것이 정히 승도궁 도원문이니 국궁 이히 교즈를 느리시고 상셔장군은 물을 느리시고 병부상셔 를 니르디 말라 텃지 틱지 니르셔도 녀스부의 고하고 텃도부의 알외여 국궁 노야 법지를 어더야 문을 여느니라 <장서각본> 3권 66-67면.

천사부를 방문한 소운성과 형 참정 등은 천사부 문에서부터 통제 당한다. 소운성 일행을 호위하는 병부의 아역들이 ‘병부상셔 소운성’이 왔다고 소리를 지르지만 천사부 문지기는 눈도 깜짝하지 않는다. 이 장면은 손기와 소운성의 역전된 위상 차이를 잘 보여준다. 결국 소운성 일행은 말에서 내려 방문객으로서의 예를 행한 후에야 천사부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때 천사부의 법도에 따라 몸을 낮춰야 하는 것은 손기의 장인인 형 참정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병부상셔라는 지위가 천사부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점을 굳이 드러내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운성을 염두에 둔 장면임을 알 수 있다. <연세대본>에서는 심지어 이 부분에서 병부상셔가 왔으니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는 병부 아역들을 향해 천사부 문지기들이 “일 모르는 북취놈들아”³⁴⁾라고 무시하며 훈계하는 것으로 그리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대로 사건의 진행 과정과 세부적인 묘사나 대화 등을 고려할 때 <영이록>은 모든 신이한 행적들과 사건들이 일차적으로 소운성과 손기의 관계 역전이라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⁵⁾

34) <연세대본> 2권 60면.

35) 작품의 주제가 소운성의 굴복과 손기의 위상 제고에 있음은 작품의 직접적인 서술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한님이 역 소왈 옛날 소진이 위 높고 몸이 귀하여 고향의 도라오미 슈와 쳐 붓그러 흐른 드러시디 일즉 동셔 항복다 말은 듯지 못하여느니 금일 소형의 호승으로 감시하여 벌빌를 즘음하니 손형의 덕이 고인의 디나도다” <연세대본>

그러나 그러면서도 앞서 2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손기를 박대했던 처가 식구들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 가족 관계 안에서 변화된 손기의 지위에 대한 인정과 명예 회복을 확인하는 작업을 잊지 않는다. 그 예로 일가족이 천사부에 모였을 때 형 참정의 입을 빌어 “부인이 전일 틱셔를 잘못다 논박하더니 이제 보니 엇더하니잇고”라고 질문 하고 형 참정 부인이 “군휘 의외지언을 하시니 능히 일언을 변박지 못하오나 손낭의 존귀 이러홀스록 네스 서량을 보디 못하는 일 첩심은 더 서운하미 심하이다”라고 말하게 함으로써 손기의 달라진 권위를 형 참정 부인 스스로 인정하게 만드는 부분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영이록>은 모든 가족들로부터 손기가 인정받는 과정을 그린 후 최종적으로 화해를 이야기 한다. 손기의 명예 회복, 특히 ‘동서 간의 관계회복’이라는 현실적 지향을 분명히 하면서도 이상적으로 작품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소운성을 포함하여 지난 날 손기를 박대했던 모두를 포용하고 아우르는 결말의 양상은 소운성의 격동 덕분에 자신이 학업과 도술을 이룰 수 있었으니 소운성이 자신의 진정한 스승이라고 말하는 손기의 발화와 서술자의 논평³⁶⁾에서 잘 드러난다.

3.2. 무능한 남편을 둔 여성의 위안과 대리만족

작품 서술 자체에 주목하여 <영이록>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리해본

2권 86면.

36) 손공이 말슴을 니어 웃고 왈 약당이 텃그자의 말을 미드시고 소져를 거두어 거시나 변하 못그디의 소상셔의 격동하미 아니면 미한 혹술을 일우디 못하야실 거시니 경히 쇼상셔가 쇼셔의 스싱이 되염죽하이다. <장서각본> 3권 82면.

슬프다. 스마텐이 굴오디 사툼이 격동티 아니면 엇디 일우미 이시리오 하니 진실노 그러헌터 만일 손국공으로 하여곰 세 사발 허슈의 욕을 보디 아니하여시면 엇디 오십년 산둥지상의 귀호를 바드리오 <장서각본> 3권 88면.

다면 그것은 앞 절에서 말하였듯이 ‘어리석다고 조롱당하던 사위가 환골 탈태하여 가족 질서 안에서 인정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소현성록> 연작이나 파생작인 <영이록>과 같은 가문·가정의 이야기를 다룬 국문소설의 주 향유층이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성 향유자의 입장에서 이 작품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바, 혹은 얻고자 했던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영이록>이 남성인물인 손기와 소운성의 갈등 문제를 포착하고 그것을 중심에 놓고 다루지만 그러한 갈등 관계 안에서 부부로 맺어진 아내와 남편이 공유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고통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아내들의 심리적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은 일차적으로 작품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아내의 형편과 태도, 그리고 다른 가족과의 관계 문제를 <영이록>은 세심하게 포착하여 묘사한다. 이는 이 작품이 비록 허구적인 성향이 소설이긴 하지만 여성의 일상 현실과 밀착되어 있는 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평소의 체험을 통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³⁷⁾

<영이록>에서 처가의 식구들 중 손기를 안타깝게 여기고 배려하는 인물은 그를 사위로 선택한 형 참정과 형계아의 오라비인 형 한림 정도가

37) 도교적 성향을 작품의 주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소재적 차원에서 적극 활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앞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본고가 이 작품을 유교적 가족 이데올로기를 긍정하며 상하남존여비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영이록>의 경우 원작인 <소현성록> 연작이 견지하고 있던 유교적 세계관을 굳이 도교적 세계관으로 비판하려 했다고보다는, 세계관과 같은 큰 차원을 문제삼기 이전에 현실적인 고난과 그에 대한 환상적·낭만적 해결을 모색해보려는 작품으로서, 현실적 성격이 강한 작품을 강조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주제적 차원에서 유교적 세계관과 도교적 세계관의 대립을 논하지 않아도, 일상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통해 유교적 가족이데올로기가 내포한 문제점이 동서갈등이라는 형태로 노출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남편에게 예측된 여성이 느낄 수밖에 없는 연대의식과 고통의 측면에 주목하는 것이 본 고의 목적이다.

있을 뿐이다.³⁸⁾ 원작인 <소씨삼대록>에서는 손생에 대한 처가식구들의 태도가 <영이록>보다 훨씬 소략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손생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형 참정 부인, 손생이 곤란한 상황에 놓일 때 그의 편을 들어주는 형 한립, 소운성이 손생에 대해 궁금해 할 때 손생에 대해 긍정적인 평을 해주는 소운성의 아내 형씨 등의 태도가 묘사된다. 이 가운데 원작인 <소씨삼대록>과 <영이록>에서 손기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게 묘사되는 인물은 소운성의 부인 형경아이다.

① 손생이 역시 어즈로운 머리와 벼산 발로 의관을 아니하고 다만 소저 방둥의 김히 쳐햐야 소리를 내디 아니하니 소저의 즈미 일시의 사름으로 디 접지 아니하느니라 <장서각본> 1권 50면.

② 소상세 형시를 디햐야 웃고 슈말을 일일히 던햐매 즈기 회히로 비로서 도췌햐를 자취햐야 슈괴햐를 일크르니 형시 벼야호로 상셔의 보치므로 햐야 곰 평안티 못햐를 과탄햐더니 츠언을 듯고 그옥이 불쾌햐야 정식묵도 햐야 더두브답햐던 상세 온가디로 회소햐다가 밧그로 나가더라 <장서각본> 2권 2면.

③ (운성이 : 필자) 형시를 디햐야 그 풍뉴햐며 회롱햐던 슈말을 던햐고 다시 손생의 전후햐사를 무른대 형시 처엄은 회히로 회언인가 햐드가 다 나 종의 실로 그런 줄을 드르미 대경 왈 손생이 한 평평햐 사름의도 츠디 못햐던 거시니 엇디 이런 신긔햐 일이 이시리오 <장서각본> 2권 42-43면.³⁹⁾

38) 참정의 당즈는 또햐인들이 영오충명햐 사름이라 둥심이 미져의 정스를 불상이 녀겨 디스의 손생을 보호햐고 가뭇을 머히 계택햐야 감히 홀디티 못햐게 하니 <장서각본> 1권 50-51면.

39) 형시를 향햐야 유완햐를 전햐고 손생의 전후햐사를 전햐디 쇼져 처엄은 비소로 아더니 진짓 말노 알고 대경실식 왈 손숙이 햐 어린 사름만도 못햐니 엇지 이리 신긔햐미 이시리오 <연세대본> 2권 2면.

<영이록>은 크게 손기의 천서 수학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기점으로 남편의 지위가 전복되면서 아내들의 위상도 달라진다. 이때 <영이록>은 남편의 지위 변화에 따른 아내의 심리 변화를 짚은 부분이지만 강하게 표현함으로써 이 작품이 남편과 하나의 운명으로 엮인 여성들의 명예 회복과 위안에도 목표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용문 ①은 형경아 등이 형부 손기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을 표현한 부분이다. <소씨삼대록> 속의 소운성 아내 형씨는 자신의 형부 손생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는다. 소운성이 손생의 사람됨이 궁금해서 질문을 할 때마다 손생을 감싸주며 손생을 지나치게 조롱하는 소운성에게 주의를 준다. 그런데 <영이록>에서는 형경아 등 자매들도 손기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고 전제한다. 물론 인용문 ②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도가 지나치게 손기를 조롱하는 소운성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소운성에게 주의를 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남편이 형부 손기보다 우월한 상황에 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여유였음이 인용문 ③을 통해 드러난다. 이 인용문 ③은 손기의 도술에 놀란 소운성이 냇을 잃고 땅에 엎드린 채 두려워 하다가 복통 심하다며 집으로 돌아온 장면과 이어지는 것이다. 남편과 형부의 처지 역전이라는 상황이 형경아의 여유를 앗아가 버려 본심이 그대로 노출되는 이 장면은 <영이록>이 남편들 간의 동서 갈등을 그 자체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곧 그러한 갈등을 겪는 남편을 둔 아내들의 문제로 치환시켜 보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어리석다고 박대를 받았던 손기의 환골탈태와 지위 역전에 관한 이 이야기가 무능한 남편을 둔 아내들에 대한 위안과 대리만족의 성격을 지닌 현실적인 작품으로도 읽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작품 수용의 맥락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본 관계인 <장서각본>과 <연세대본>이 보여주고

있는 관심의 차이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④ 참정 부인 제즈 부녀를 거느려 니아의 드러가니 치의홍상흔 시네 길을 인하여 치각주란이 일식의 바이여 상운셔뫼 녕농 하니 요디선경인가 의의심 하며 정당의 니르니 슈당이 움죽이는 고디 향풍이 진올호여 올라탈 전하며 금봉선과 옥주미를 잡은 시의 일위 부인을 뵈셔 나오니 <장서각본> 3권 74면.

⑤ 츠시 가부인이 녀부를 거느려 니르고 형참정 부인이 제부제녀를 거느려 니부 문의 들시 소부인이 손부인의 부귀를 결우려호여 비즈 십여인을 금 슈능나로 꾸미려 호더니 상셔 금호미 쫓을 일우지 못하다 한 문의 모든 부인이 들나홀시 등문의 다다라 청금원삼의 홍상흔 시비 십인이 나와 맛더니 또 혼 문의 니르니 홍금원삼의 청산흔 시비 십인이 나와 맛고 또 혼 문의 니르니 녹금 원삼의 즈적 슈향흔 시네 나와 맛고 또 혼 문의 니르니 청금원삼의 성유식 슈상흔 시비 십여 아 시비 마즈 흥식이 궁진호미 등당의 미츄니 좌우의 운금장막을 둘러치고 가운데 바른 발을 놓히 겹고 난간과 계하의 흑 홍의 도 호고 흑 녹의도 하며 슈상도 쓰으며 금선 사미를 나뭇겨 시워흔 시비 슈빅이나 하니 혼번 바라보미 일천 가지 쫓치 닳토아 피여눗 듯 계상과 난간가의 금노의 신향을 피워 난사의 기운이 전각을 둘러더라 서로 도라 보아 황연이 구천 궁궐의 오른 듯 소부 시비드리 즈연이 붓그려 낮출 드지못호더라 <연세대본> 2권 64면.

인용문 ④와 ⑤는 손기가 호국천사 위공이 되어 천사부에 머물게 되자 일가족이 금오산 천사부를 찾는 장면인데, 외적인 화려함을 통해 서로의 영화를 비교해보려는 여성들의 심리 유무에서 차이가 난다. 다른 부분보다도 화려함과 부를 묘사하는 지점에서 ‘비교의 심리’를 적극적으로 드러낸 이본의 존재는 이 작품을 남편의 성공과 그로 인한 아내의 처지 역전 이야기로 읽은 독자들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소운성의 아내 형경아가

손기의 아내 형계아와 부귀를 거두려 했다가 무안만 당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는데, 이는 독자들이 이 작품을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자신들의 삶과 연결 지어 읽어보려 했던 하나의 양상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손기가 환골탈태 할 수 있었던 공을 아내 형씨에게도 돌리는 작품의 마지막 서술⁴⁰⁾ 역시 소설 창작의 이유를 밝히는 상투적인 발언일 수도 있지만, 작품의 가장 끝 부분을 여성에 대한 치하로 마무리 한 이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 약간의 변화까지 주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을 향유했던 여성들의 수용 태도와 심리를 유추해볼 수 있다. 작품의 주인공은 남성이지만 어리석은 남성의 고난과 성공과 인생 역전 과정에 부부로서 같은 길을 걷는 형계아에 대한 치하를 잊지 않음으로써, 이 작품을 향유하는 여성들에게 심리적 위안과 대리만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⁴¹⁾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영이록>은 작품 창작의 계기에서부터 결말에 이르기까지 대가족 관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 갈등에 주목하여 그 문제를 짜임새 있게 해결하려 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천서를 수학하는 도교적 내용이 모두 누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서각본 계열 <영이록>이 한 편의 완결된 작품으로 향유된 점, 누락된 4장을 제

40) 형시 혼 말로써 소년의 흐린 거슬 씨와 굼병이 변하야 미야미 되며 미기 화하야 놓이 되물 어드니 엇디 어딘 안희의 공이 아니라 이러므로 형시의 덕을 괴특하야 후인을 알게 호노라 <장서각본> 2권 11면.

형시 혼 말의씨 지야비 흐린 거슬 일씨와 굼병이 변하여 미암이 되며 밋구리 변하여 놓이 되물 어드니 엇지 어진 안희의 공이 아니리오 이러므로 형시의 덕을 괴록하여 붉은 붓디의 빗줄 돕노라 호니라 <연세대본> 2권 74-75면.

41) <영이록>을 문학치료적 관점에서 분석한 최근 연구에서는 이 작품을 자기정체성을 확인하고 목표를 설정·준비함으로써 고난을 극복하는 영웅의 이야기로 보았다. (임치균, 『좌절? 바보! 극복? 영웅의 방정식과 문학치료적 함의』, 『문학치료연구』 10, 한국문학치료학회, 2009, 53-87면 참조.)

외하고 이분을 비교해보았을 때 부연되거나 수정되면서 의미가 한층 풍성해진 부분이 손기와 형제아의 부귀영화에 관한 부분이라는 점 등은 작품을 수용하는 독자들의 관심이 ‘도교적 요소’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체험보다 가족 안의 문제, 특히 주인공의 명예 회복과 같은 현실적 문제로 향해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⁴²⁾ 그리고 사건 해결 방식을 고려했을 때, 도교적 요소를 수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희적·오락적 기능을 한껏 즐겼다고 할 수 있다.

4. <영이록>의 소설사적 의의

<영이록>은 11권 11책(매 권 평균 120면)으로 이루어진 국문장편소설 <소씨삼대록>의 여러 이야기 중에서도 약 18면정도 서술된 소운성과 손생의 짧은 일화에 주목하고 그것을 수용하여 재창작한 작품이다. 국문장편소설에서 다루는 갈등이 주로 부자, 고부, 용서, 부부, 처처(처첩), 형제 등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것이므로 <소씨삼대록>에 그려진 소운성과 손생 이야기는 비록 짧은 일화에 불과하지만 독특한 예이다. 그런데 <소씨

42) 도교적 요소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는 목적 보다는, 환상적인 수단을 통해 인물들이 얻게 되는 현실적인 행복한 삶의 결말에 더 집중하는 예는 다른 국문장편 소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입화정연>에는 병으로 남편을 잃고 시모에게 온갖 구박을 받다가 하늘의 뜻에 따라 여도사가 되는 조씨가 등장한다. 이분에 따라 조씨가 신이한 능력을 얻게 되는 부분을 자세히 서술(72권 72책 <입화정연>)하기도 하고, 선약을 먹고 신이한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결과만을 서술(6권 6책 <입화정연>)하기도 한다. 그런데 도사가 되는 과정을 좀 더 그럴 듯하게 그리려 했느냐 아니냐의 차이는 있지만, 72권 72책 <입화정연>의 서술 역시 구체적인 도교적 지식을 기반으로 서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작품이 주목하는 것은 도교적 지식이 아니라 조씨가 신이한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과 그 결과 행복해졌다는 결말임을 짐작할 수 있다.

삼대목>은 이것을 단순히 소운성의 호기를 보여주는 일화의 성격으로 그렸다면 <영이록>은 이런 독특한 일화를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가족 간의 여러 갈등 중 ‘동서 간 갈등’이라는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도록 하는 한 편의 완성된 소설을 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원작에 대한 일종의 반론 방식으로 창작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소설 창작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관심의 새로운 면을 읽어볼 수 있다. 이러한 반론 제기의 방식을 오늘날의 용어로 이해해보자면 원작에 대한 ‘패러디’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고소설이 원작에 대한 적극적인 풍자나 회화화보다 반복과 모방을 하면서 그 안에서 약간의 변화를 추구하는 광의의 패러디를 구사하고 있는 것⁴³⁾과 비교한다면, <영이록>이 <소현성록>에 대해 시도하고 있는 패러디는 매우 적극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이록>의 이러한 창작 방식은 단순히 원작과 그에 대한 연작, 혹은 파생작 창작이라는 모방이나 확장적 성격의 글쓰기와 달리 국문 소설 영역 안에서도 원작에 대한 비판과 풍자의 의미를 갖는 패러디적 글쓰기가 가능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또한 <영이록>은 국문장편소설과 유사한 문제를 고민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국문장편소설의 일반적인 관습과 구별된다는 점에서도 새로운 면이 있다. 다수의 국문장편소설들이 가족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들을 그리고 있지만 그것을 알아채고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독자의 몫이라고 할 때, <영이록>은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가 되는 인물과 상황들을 독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작가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손아래 동서 소운성의 무례함과 같이 겉으로 드러내고 문제 삼을 수 있는 갈등 외에 가족관계 안에 내재되어 있으나 함부로 문제 삼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43) 정출현, 「고전소설의 ‘천편일률’을 패러디의 관점에서 읽는 법-전기소설 <금오신화>와 <오유란전>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38, 국제어문학회, 2006, 42-43면.

는 도교적 요소를 소재적 차원에서 취하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환상성을 부각하여 낭만적 해결을 모색함으로써 현실의 문제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기존의 유가 질서나 가문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하지 않았지만 그것들이 유발시킬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도 효과적으로 접근한 것이다. 신이성에 기반을 둔 문제 해결 방식을 모색함으로써, 그 신이성이라는 범주 안에서는 전복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노출하지만, 넓게 봤을 때 그것이 현실과는 다른 세계에 대한 상상으로 보이게 하여 문제의 소지를 줄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심각한 문제에 대한 낭만적인 방식의 문제 해결은 작가의 고민 부족이 아니라, 진지한 고민의 결과로 읽혀질 수 있으면서도 이 작품이 지나치게 무거운 작품이 되지 않고 통속소설로서의 흥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를 발휘한다.

또한 그 수가 몇 안 되지만 유사한 동서갈등을 다룬 소설과 비교해보았을 때 <영이록>은 다른 작품들과 달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 전복을 통해 화해를 모색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택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고전소설 가운데 <영이록> 외에 동서갈등을 다룬 독립 작품으로는 <반씨전>과 <위씨절행록>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여성 동서들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영이록>과 갈등 주체의 성별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이 <반씨전>과 <위씨절행록>은 가문 내에서의 주도권 쟁취⁴⁴⁾ 때문인 반면, <영이록>은 손아래 동서의 무례함 때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반씨전>과 <위씨절행록>은 각각 시부모의 사랑과 가정 내에서의 주도권에 욕심을 내는 인물들이 자신들보다 우월하다거나 경쟁상대가 된다고 생각되는 인물들에게 해를 가하지만 결국은 해를 당하던 사람들이 승

44) <반씨전>의 경우 가권이며, <위씨절행록>의 경우 시부모의 신임과 가권에 준하는 권력에 해당한다.

리한다는 내용의 작품이다. 그런데 이들 작품은 가족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동서갈등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시각이 수동적이다. <반씨전>의 반씨는 시어머니로부터 전적으로 총애와 신임을 받다가 이를 시기하는 두 동서들과 시동생들에 의해 시어머니 사후 집 밖으로 내쳐진다. 유배 간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어린 아들을 키우는 반씨는 오로지 자신의 지위를 회복할 길은 아들의 과거 급제라며 아들 위흥을 가르치는 데 전념하고 아들도 어머니의 뜻에 따라 학업에 매진한다. 즉, 해를 가한 인물들에게 직접적으로 맞서지 않고 우회적이며 상식적이고 유교 윤리에 합당한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해내고 그것을 인물의 행동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위씨절행록>역시 참고 인내하면 언젠가 명예 회복의 기회가 올 것이라는 수동적인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다. 셋째 며느리인 위씨는 시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 하는 둘째 며느리의 견제 때문에 일차적 위기에 직면한다. 그리고 동서 간의 갈등에 남편과 외삼촌 간의 정치적 갈등이 더해져 가문 밖으로 내쳐진다. 그러나 재혼을 강요하는 아버지 때문에 친정에서 머무를 수도 없어서 산사(山寺)에 몸을 숨긴 채 정절을 지키면서 유배 간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 결과적으로 위씨의 고난은 남편의 해배와 둘째 며느리의 꾀임에 빠져 눈과 귀가 멀었던 시부모의 각성을 통해 해소된다. 막연한 기대를 갖고 인내한 덕분에 결과적으로는 고난에서 벗어났지만 자신이 고수하고 있는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다.⁴⁵⁾

45) <위씨절행록>의 경우 시부모의 오해가 풀리고 남편이 해배된 이후에도 위씨가 바로 시가로 복귀하지 않고 일 년 이상 친정에 머물면서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고 시부모로부터 사과를 받은 후에야 시가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시대과의 관계에 있어 “종속적이고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선택”했다고 본 논의도 있다.(이지하, 『위씨절행록의 여성소설적 성격』, 『고소설연구』 9, 한

물론 <반씨전>과 <위씨절행록>은 동서갈등 때문에 고난을 겪는 인물을 여성으로 설정하였으므로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수 있다. 그러나 작중 인물들의 고난을 설정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모든 과정을 유교 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선 안에서 수동적이고 원칙적인 형태로 전개하려 했기 때문에 <반씨전>이나 <위씨절행록>에서 그려지는 고난과 문제 해결의 과정은 역동적인 느낌을 주지 못한다. 반면 <영이록>은 동일하게 유가적 가족 관계의 틀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서갈등을 이야기하면서도 상황의 역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다는 시각의 전환을 시도했기 때문에 상상력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5. 결론

<영이록>이 무능한 사위에 관한 이야기이자 동서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는 점은 선행연구에서 이미 지적되었다. 따라서 손기와 소운성의 갈등을 동서갈등으로 명명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다만, 선행 연구에서는 손기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을 기점으로 작품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눈 후, 후반부 내용을 근거로 이 작품이 동서대립담 구조를 포함하면서도 손기의 영웅적 형상화에 주목하기 때문에 동서대립담이나 못마땅한 사위형 소설과는 다르다고 보았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작품의 결말 부분에서 이루어진 인물들의 발화나 서술자의 논평에 유의해

국고소설학회, 2005 참조.) 그러나 위씨가 자존심을 세우며 시가로 돌아가지 않는 행동은 자신의 삶에 닥친 고난을 해결하는 차원에서의 적극성이 아니라 이미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들에게 항의를 하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고난과 해결을 바라보는 시각의 적극성과는 차이가 있다.

볼 때, 손기의 성공은 가족·가문 내적으로 의미가 강한 것으로 보았다. 손기를 쓴 가문의 장자가 아닌 삼남으로, 형씨 가문에서도 여섯째 사위로 설정한 것 역시 그의 성공이 가문의 위상 제고보다는 가족 내에서의 갈등 해결에 목표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는 악령제치 과정에 등장하는 신이한 도술에 주목하여 이 작품을 유가적 취향의 <소현성록>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도가적인 작품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소현성록>이나 <현몽쌍룡기>처럼 유가적 사유를 기반으로 하는 소설에도 도술을 통한 악령 제치나 전쟁 장면이 빈번히 등장하며, 인물들의 전생을 관장하는 인물들이 옥황상제와 같은 천상의 인물로 그려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영이록>에 수용된 도교적 요소만을 근거로 이 작품의 성격을 도교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았다.

그간 <영이록>은 여타의 국문소설 작품에 비해 작품 내에서 도교적 요소들이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신성소설이나 도교소설로 성격규정 되면서, 국문소설 가운데서도 특이한 작품으로 인식되어 왔다. 작품에 수용된 도교적 요소에 대한 주목과 집중은 이 작품의 독자적 특징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작품이 보여주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읽어내는 데 다소 소극적일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면이 있었다.

<영이록>이 수용·활용하고 있는 도교적 요소는 분명 작품의 흥미성과 유희성을 높여주어 소설을 읽는 독자에게 즐거움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도교적 요소가 작품에 폭넓게 수용된 까닭을 도교에 대한 관심이라는 측면에서만 보지 않고 이 작품의 창작 원천이 된 원작과의 관계에 주목해서 본다면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리라는 전제 하에 <영이록>이라는 작품 성격에 대한 재 고찰을 시도하였다. <영이록>이 <소씨삼대록>

에서 지나치게 호방하고 거칠 것이 없이 행동했던 소운성이라는 인물에 관한 일화 중 동서 관계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주목, 그 부분을 풍자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패러디 작품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볼 때, <영이록>이 적극 수용하고 있는 도교적 요소는 <소씨삼대록>에서 소운성을 '신선'에 비기는 관행에 대한 풍자이자 문제 해결에 대한 낭만적 모색의 성격이 강함을 읽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영이록>이 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부분은 가정 내 외적으로 처한 처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매우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가족 간의 미묘한 갈등에 있음을 살펴보았다.

<영이록>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도교적 요소는 소설의 흥미를 높이고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하는 소재나 기법 차원에서 충분히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유희 소나 흥미소로 기능하는 도교적 요소들을 작품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은 수정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영이록>이 대중적인 통속소설로서 갖는 흥미소는 그 자체로 가치를 인정하되, 이 작품이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를 포착, 문제제기하고 그것에 대한 나름의 해결을 모색해보려 한 측면 주목하여 작품을 균형 있게 해석하고 작품의 성격을 재 고찰 해보았다.

참고문헌

- <영이록> 3권 3책, 한국학중앙연구원.
 <손천사영이록> 2권 2책,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
 『영이록·태원지』, 이화여자대학교, 1973.

- 구보 노리따다, 『도교사』, 최준식 역, 분도출판사, 2000, 1-430.
-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3, 1-258.
- 성기욱, 「사대부 시기에 수용된 신선모티프의 시적 기능」, 『국문학과 도교』, 1998, 11-49.
- 성현경, 『한국소설의 구조와 실상』,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1, 1-399.
- 손찬식, 「영이록의 무속적 고찰」, 『어문논집』 26, 안암어문학회, 1986, 117-141.
- _____, 「영이록의 민담수용양상」, 『국어교육』 49, 한국어교육연구회, 1984, 227-247.
- 양용은, 「조선시대 수련도교의 전개와 양생사상」, 『한국종교사연구』 4, 한국종교사학회, 1996, 53-95.
- 이상택, 「영이록 소고」, 『영이록·태원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3, 6-12.
- 이지하, 「위씨절행록의 여성소설적 성격」, 『고소설연구』 9, 한국고소설학회, 2005, 87-112.
- 임치균, 「영이록 연구」, 『고전문학연구』 8, 한국고전문학학회, 1993, 327-351.
- _____, 「좌절? 바보! 극복? 영웅의 방정식과 문학치료적 함의」, 『문학치료연구』 10, 한국문학치료학회, 2009, 53-87.
- 장언푸, 『도교』, 김영진 역, 산책자, 2008, 1-379.
- 전성운, 『조선후기 장편소설의 조망』, 보고서, 2002, 1-389.
- 정병욱, 「낙선재문고 목록 및 해제」, 『국어국문학』 44·45, 국어국문학회, 1969, 2-65.
- 정출현, 「고전소설의 ‘천편일률’을 패러디의 관점에서 읽는 법-전기소설 <금오신화>와 <오유란전>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38, 국제어문학회, 2006, 35-63.
- 조희웅, 「낙선재본 번역소설 연구」, 『국어국문학』 62·63, 국어국문학회, 1973, 257-273.
- 최기숙, 『환상』,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 최윤희1, 「<손천사영이록>의 이본 특징과 존재 의미」, 『한국학연구』 3,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169-195.
- 최윤희2, 「<손천사영이록>의 도교적 면모와 의미」, 『우리어문연구』 38, 우리어문학회, 2010, 37-67.
- 최현성, 「<손천사영이록>에 나타난 <소현성록>에 대한 시각」, 고려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12. 1-66.

허원기, 「<손천사 영이록>의 도교적 상상력」, 『고소설연구』 29, 한국고소설학회, 2010, 223-253.

ABSTRACT

Raising the Question in Realistic Ways and Searching
 the Romantic Ways to Solve the Problems
 -Re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Youngirok>-

Hur, Soon-Woo

Because it gave a lot of weight to Taoistic elements compared to other novels in Korean, <Youngirok> has been classified as a Taoism novel, thus has been recognized as a unique work among novels in Korean. Focusing and concentrating on the Taoistic elements that <Youngirok> contains meant much in clarifying the unique characteristic of the work, on the other hand, tended to lead us to be less concerned about discovering the interests in realistic issues that the work shows. Taoistic elements that <Youngirok> contains and uses must have given readers pleasure by raising the level of fun and amusement. But instead of seeing the reason for the wide adoption of Taoistic elements as just for fun or interest in Taoism, I tried to re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Youngirok> on a premise that a new interpretation can be possible if we view it with attention to its relation to the original work.

Focusing on the fact that <Youngirok> is a parody work about So-Woon-Sung, a broad-minded and outspoken character from <SoSsiSamDaeRok> and it pays attention to what happens between brother(sister)-in-law thus satirizes and raises objection, I could understand that its adoption of Taoistic elements is a satire on the custom that compares So-Woon-Sung to a Taoist hermit in <SoSsiSamDaeRok>, and it also can be seen as a romantic search for solution problems. And this research found that the thing on which <Youngirok> pays ultimate attention is the subtle conflicts between family members that is very routine and realistic and caused by the differences between their extrinsic circumstances.

The Taoistic elements that <Youngirok> actively adopts can be found meaningful as a means or technique which increases the fun of the novel and leads readers to enjoy itself. But in the process of telling the characteristics of this work, the perspective

that sees the Taoistic elements which function as a factor for amusement or fun as the representing factor for the whole work needs to be adjusted. Thus, this research acknowledges the value of the factor for fun that 〈Youngirok〉 has as a popular novel, and also pays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is work focused on very realistic problems and pointed them out, and tried to show its own solution, so that we can reconsider its characteristics with balanced interpretation.

Key Words Taoistic elements, fun, parody, reconsideration of characteristics, Raising the Questions of Realistic Problems, Romantic search for solution problems, consolation

논문투고일 : 2012. 04. 28
심사완료일 : 2012. 05. 30
게재확정일 : 2012. 06. 05

